

길지민·김혜지·이누리·최예령·한지우. 2019. “2017년 ‘생리대 파동’과 그 이후” 『인권연구』 2(2): 47-91.

Keel, Jimin · Kim, Hyeji · Lee, Nuri · Choi, Yeryeng · Han, Jiwoo. 2019. “The 2017 ‘Sanitary Pad Incident’ and Thereafter”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2): 47-91.

[일반논문]

## 2017년 ‘생리대 파동’과 그 이후 : 여성인권운동으로서의 생리대 파동 그려내기\*

길 지 민 · 김 혜 지 · 이 누 리 · 최 예 령\*\*  
· 한 지 우\*\*\*

한글초록

2017년 8월,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이후 여성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생리대 파동’에 적극 대응하였다. ‘생리대 파동’은 ‘페미니즘 리부트’로 확산된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 속에서 여성건강권과 월경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시키고 처우를 개선시킨 여성 인권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리대 파동’을 경험했던 여성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자료를 분석하여 운동의 과정을 조망하고, 여성들의 실천이 어떠한 개인적·사회적 변화를 초래했는지 검토한다. 이들은 부작용 경험과 배신감의 감정을 공유하며 집단적 불매 운동과 대체용품 탐색을 통해 기업과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성들의 시장과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기업의 시장 왜곡과 정부 부처의 기업 친화적인 대응이 지속되고, 언론의 ‘릴리안 죽이기’ 프레임이 확산되며 운동의 동력을 장기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생리대 파동’에 대한 저항운동은 전성분포시제의 도입, 생리하는 몸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 여성 건강권 의제의 확장이라는 성과를 불러왔다. ‘생리대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주최하고 지원한 ‘제7회 학생인권연구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에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 전공과목 <사회학연구실습>에 지원한 연구비의 수혜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길지민·김혜지·이누리·최예령: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과정

\*\*\*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과정

과동'은 한국 월경권 운동의 전환점을 제공했으며, 앞으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월경권의 제도적 보장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생리대 과동, 생리대 안전성, 여성건강권, 월경권, 사회운동, 여성인권운동, 여성환경연대, 전성분표시제, 온라인 페미니즘

— 목 차 —

I. 서론: 왜 '생리대 과동'인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II. 본론

1. 생리대 불매운동과 생리대 산업
2. 제도 개선 요구와 정부의 대응
3. 과동 이후의 변화
4. 여성인권운동으로서의 생리대 과동

III. 결론

I. 서론: 왜 '생리대 과동'인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생리에 관한 많은 페미니즘 연구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생리가 '오염' 및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의미와 결합되어 여성의 활동을 사회문화적으로 배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한다(노지은, 2018). 그 결과 생리는 감추어야 하는 대상으로 구성되었고(정연보, 2019),

생리대 역시 생리를 효과적으로 감추기 위한 도구로서만 인식되고 사용되었다. 이러한 페미니즘 연구의 지적처럼 생리 기간을 ‘예민한 그 날’, ‘마법에 걸린 날’로 지칭할 만큼 여성의 생리를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한국 사회를 돌아보았을 때, 2017년의 ‘생리대 파동’은 생리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인식, 담론, 제도, 시장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에서 변화를 초래한 유의미한 사건이다.

‘생리대 파동’은 여성들의 생리 경험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2015년을 전후로 나타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이 있다. 2-30대의 여성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탈코르셋, 낙태죄 폐지, 불법촬영, 미투 운동과 같은 일련의 사안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문제제기하고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집합적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페미니즘 리부트’가 여성 관련 의제에 대해 이전과는 상이한 논의의 지평을 열어주었음은 분명하다. 2017년의 ‘생리대 파동’ 역시 이 패러다임의 전환과 별개로 이해될 수 없다.

2017년 8월, 특정 브랜드의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여성들이 해당 생리대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계기로 ‘생리대 파동’이 시작되었다. 생리대가 대부분의 가임기 여성이 달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은 여성들이 ‘생리대 파동’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에 안전성 의혹이 제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불매운동이 촉발되었다. 여성들은 매달 며칠씩 자신의 신체에 직접 닿는 생리대에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에 논란이 된 제품에 대해 불매를 선언했다. 믿고 사용해왔던 제품이 나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분노였다. 하지만 문제의식은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여성들의 분노는 기업의 안일함을 목인해온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문제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내 몸이 증거다’라는 슬로건이 등장했고, 여성 건강권에 관한 의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생리대 파동’에서 촉발된 여성들의 움직임은 그동안 집합적인 사회운동으로 포착된 바 없었으나, 불매와 대안용품 사용, 월경권의 사회적 보장 촉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 일련의 집합적 행위들을 여성인권운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여성들의 일상과 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킨 ‘생리대 파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 초래한 변화를 기록하고 의미를 검토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생리대 파동’ 이전의 여성들이 생리와 관련하여 제기해온 의제를 검토하고, ‘생리대 파동’에 초점을 맞춰 이 운동이 어떤 길을 거쳐 왔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드러낼 것이다. 나아가 파동을 겪으며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확장되었고, 여성들의 실천이 어떠한 개인적·사회적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진단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시대에 ‘생리대 파동’이 여성인권운동으로서 갖는 함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심층 면담 및 온라인 ‘데이터 수집하기’(crawling)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먼저 면담의 경우, 운동에 참여한 개개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자에게 ‘생리대 파동’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결과적으로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답변들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여성들의 삶 속에서 ‘생리대 파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생리대 파동’에 관심을 가져 온 여성 6인과 여성환경연대의 활동가 1인을 선정하여, 각각의 구술자와 30분 이상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활동가 1인을 제외한 개인 6인의 경우, ‘생리대 파동’ 당시 관심을 두고 사안을 지켜본 여성들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려 노력했다. 피면접자 7인의 기본 정보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번호	연령	특징
A	20대	서울 거주 대학생. 생리대 파동 당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B	20대	서울 거주 대학생. 생리대 파동 당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후 생리컵을 사용하게 되었다.
C	20대	서울 거주 대학생. 생리대 파동 이전부터 대안용품에 관심을 두고 생리컵을 사용해왔다.
D	40대	10년 이상 대안 용품을 사용해 온 여성환경연대 밖 활동가로, 파동 당시 여성환경연대의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주최한 ‘월경 피크닉’에서 접촉하였다.
E	20대	서울 거주 대학생. 파동 전부터 월경 의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행사에 참여해왔다. 여성환경연대에서 주최한 ‘월경 피크닉’에서 접촉하였다.
F	30대	여성환경연대의 활동가로, 의제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했다.
G	30대	지방 거주 직장인. 집단 소송 카페에 가입하였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블로그에 관련 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 생리대 파동 당시 릴리안 생리대 환불을 신청하였다.

온라인 데이터 크롤링의 경우 ‘생리대 파동’ 당시 온라인 여론이

어떤 계기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트위터는 10-20대 여성들의 온라인 페미니즘 관련 논의가 가장 풍부한 공간이며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탈코르셋’, ‘미투운동’, ‘불법촬영 편파수사’와 같은 굵직한 페미니즘 의제들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한 통로다(김애라, 2019). 본 연구는 트위터를 통해 생리대 파동의 시작점인 ‘릴리안 사태’가 기사화된 2017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릴리안’, ‘생리대’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윗을 65,753개 수집하여 분류 및 분석함으로써 당시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확장되었는지,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의식이 주로 공유되었는지 등을 살피고자 했다.

더불어 2019년 5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시 오간 논의를 기록하고 이 또한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사건의 진행 과정에 다방면으로 관여한 유력 행위자들이 대화하는 장에서 기존에 확보한 면접 자료나 온라인 텍스트와는 또 다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생리대 시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판매되는 파동 이후 새로 출시된 생리대의 종류와 브랜드, 가격, 마케팅 전략과 대안용품의 유무 현황을 조사했다. 광고의 측면에서도 ‘생리대 파동’ 이후 주목을 받았던 광고들을 살펴보고, 이 광고들의 댓글과 조회수 등 온라인 반응을 관찰했다. 광고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매체로서, 기업 및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선행연구 검토

#### (1) 페미니즘 리부트와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

2015년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는 페미니즘의 재부상을 경험했다. 이

른바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은 온라인과 대중문화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에서 시작됐다. 김보명(2018)은 ‘페미니즘 리부트’의 특징 중 하나로 사회운동, 강단과 같이 기존의 제도화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체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꼽는다. 온라인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미투 운동’ 등 일련의 사안에서 여성혐오와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부상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이종임 외, 2019).

마찬가지로 ‘생리대 파동’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릴리안 사태’의 촉발, 사회적 의제 형성, 이후 법정소송에까지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온라인 페미니즘이 보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이 ‘생리대 파동’에서 드러난 여성들의 온라인상의 움직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 지점이 될 수 있다. 김해원 외(2018)의 연구는 혜화역 시위의 의제 형성과 조직화 과정을 탐구하면서 신문, 방송 등의 기존 매체가 아닌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팟캐스트 등 다양화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해 의제를 발동시키는 ‘포스트 미디어 시대’의 여성운동을 분석한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급속한 조직화를 가능케 했으며, 그 중에서도 혜화역 시위와 생리대 불매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의제 촉발의 초동적인 역할을 수행한 트위터라는 SNS는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익명성을 지닌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생리대 파동’에서 SNS는 여성들이 열린 공간에서 손쉽게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공통의 피해자성이 형성되는 것을 촉진했다. 여성들은 생리 질환을 계속해서 자신의 몸의 문제로 치부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릴리안’에 대한 배신감의 감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 속 여성의 ‘말하기’는 여성들 개인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자 보편적인 경험임을 드러낸다(이종임 외, 2019).

한편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네트워크 운동은 이처럼 익명성과 개별성에 의존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운동의 지속성이나 확장성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된다(김애라, 2019). 특히 ‘불편한 용기’라는 구심점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던 해화역 시위와는 달리(김해원 외, 2018), ‘생리대 파동’의 여성 온라인 운동은 언론과 식약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이 이뤄지며 운동의 구심점이 형성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다. 이처럼 온라인 네트워크라는 동일한 운동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각 운동이 처한 조건에 따라 어떠한 동력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다.

## (2) 여성 건강권과 월경권 운동에서 제기된 문제들

여성들의 건강권 측면에서 ‘생리대 파동’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연구의 주요 질문 중 하나이다. 1960년대 여성해방운동에서 촉발된 피임 및 낙태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성건강운동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여성건강운동이 본격화되었는데, 당시에 많은 풀뿌리 조직인 자조 집단들이 결성되어 의료를 독점한 남성 권력을 비판하며 여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통제한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이러한 여성건강운동은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는 기존 보건의료 체계에 저항하고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스스로 지식생산의 주체가 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고 사회변혁적인 성격을 띠었다(정인경, 2014).

그러나 여성건강운동이 월경권 운동(Menstrual Activism)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상업화된 생리용품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했다. Bobel(2008)은 미국 월경권 운동의 발달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월경용품이 여성건강운동의 독립적인 주제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월경을 ‘위생 문제(hygienic crisis)’로 바라보고 탐폰을 가장 합리적인 편리성의 도구로 위치 짓는 시각

이 지배적이었다.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79년 촉발된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 파동’으로, P&G의 ‘Rely’ 제품 출시로 TSS 사례가 급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폭발적인 언론과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여성위생용품에 대한 규제를 지시하고 탐폰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의료 용품의 분류로 격상했다.

마지막으로 Bobel이 정립한 세 번째 단계는 월경권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동시에 한계를 보이면서 기존의 운동으로부터 벗어난 움직임이 등장한 단계이다. 탐폰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생리용품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와 유사하게 기업 옹호적인 대응을 보였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탐폰에 함유된 다이옥신에 발암 위험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생식기 노출이 아닌 피부 노출을 가정하는 등 탐폰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Bobel은 다음 세대의 월경권 운동가들이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을 보며 총체적인 불신을 갖게 된 결과로 자본주의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월경용품을 제작하는 ‘Do It Yourself’ 월경 관리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해외 월경권 운동은 몸 통제에 대한 페미니즘 운동 흐름 속에서 소비자와 시민으로서 여성 개인, 국내외 운동단체, 정부, 시장, 법, 과학기술, 미디어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과 주체들이 서로의 행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한국의 ‘생리대 파동’에서도 여성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들의 행위를 통해 어떤 층위에서 사회구조가 유지되거나 변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1989년 ‘독성쇼크증후군 파동’이 월경권 운동의 변곡점을 마련했듯 한국에서는 2017년의 ‘생리대 파동’이 생리용품 안전성 문제와 월경권 문제에 있어 급격한 의제화와 대중운동 형성을 촉발한 계기로 평가되는 지점

을 살펴볼 것이다.

### (3) 파동 이전의 생리 담론

1971년 국내에 일회용 생리대가 처음 출시된 이후 2017년 ‘생리대 파동’이 있기 전까지, 오랫동안 생리대는 공적인 논의의 공간에서 배제되어왔다. 김미현(2007)은 한국사회의 생리에 대한 담론은 식민지 시기의 월경에 대한 의학적 병리 담론과 1960-70년대 정부의 출산 통제 과정에서 피임과 임신 가능성에 초점을 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파동 이전에 생리에 관한 담론이 부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Roh(2019)는 한국의 월경권 운동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 위에서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1999년 개최된 제1회 월경 페스티벌의 표어는 “이 순간, 세계 여성의 5분의 1이 생리 중입니다.”였으며, 여러 언론이 “쉬쉬말고 떳떳하게 여성계 ‘월경 제대로 보기’ 운동” 등의 제목으로 이 행사를 보도하였다. 저자는 월경 페스티벌을 생리와 생리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바꿔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생리를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만큼이나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생리대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그에 따른 낮은 접근성에 관한 지적이었다. 여성계는 긴 싸움 끝에 2004년 생리대를 면세품목으로 지정하는 데에 성공했으나, 면세 조치 이후에도 기업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산 생리대의 가격이 해외보다 훨씬 비싼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인권과 결부되어 제기되었다. 2016년,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해야 했던 저소득층 여성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생리대 가격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올랐고, 이는 생리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규모 오프라인 시위로까지

지 이어지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생리대 파동’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일회용 생리대 성분의 안전성 문제 또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다. 2003년, 에코페미니스트 공동체 ‘꿈꾸는 지렁이들의 모임’은 책 《꿈꾸는 지렁이들》에서 생리대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러한 주장들에 힘입어, ‘피자매연대’ 등에 의해 이전까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안 생리용품이 여성들에게 소개하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생리대 파동’의 주요 주체였던 여성환경연대 또한 2014년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를 요구하는 등 생리대 성분의 안전성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이처럼, ‘생리대 파동’ 이전에도 생리를 하는 여성이 생리용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생리용품이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의심은 1990년대 이래 여러 주체들에 의해 수차례 발화되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몸을 해석하는 기존의 성차별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생리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2017년의 ‘생리대 파동’을 거치며 더 크고 강력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 II. 본문

### 1. 생리대 불매운동과 생리대 산업

#### (1) 여성 소비자의 불매운동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며 2017년 3월 21일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에서 강원대 환경융합

학부 생활환경연구실과 함께 진행한 일회용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일보>에 실험결과가 보도됐지만 여성환경연대는 “검출 실험의 목표가 특정 브랜드나 제품 공개가 아니라 생리대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 마련과 개선이라는 점”에서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여성 소비자들은 생리대 부작용 경험을 공유하며 실험 대상이 된 생리대가 무엇인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이 ‘릴리안 생리대’가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 18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여성환경연대의 유해물질 검출실험에서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이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이 릴리안이었다는 점이 인용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보도 직후 대규모 불매운동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이 여성들이 불매운동 참여의 핵심적 과정인 ‘피해자 동일시’ 과정을 생략하고 피해당사자로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은아·박민지(2018)는 불매운동 참여의도 형성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불매운동 참여의도 형성 요인을 지각된 심각성, 피해자 동일시, 기업 선호도, 지각된 효능감으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특히 지각된 심각성과 피해자 동일시 정도가 높을 경우 개인들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과 자신을 같은 내집단으로 인식하여 불매운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중 피해자 동일시의 측면에서, ‘생리대 파동’은 여성들이 타인의 경험에 대한 감정이입의 과정 없이도 이미 쌓여 있는 개인의 생리 경험을 통해 직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생리 중에 피부 쓸림을 나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됐다. 생리대 자체의 문제였구나.”(8월 20일)과 같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생리통 등이 각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증상이 아니라 생리대 유해 물질로 인해 받은 피해임을 인식했다. 이는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생리대 파동’ 이전에 일회용 생리대에서 생리컵으로 월경용품을 바꿨던, 따라서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이미 제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구술자 C는 ‘생리대 파동’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구술자 C : 생리컵 쓴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리컵을 안 새 게 끼울 수 있게 됐을 때쯤 (생리대 파동이) 터졌던 거로 기억하거든. 나도 그전까지 생리대를 8년씩 썼으니까, 당사자일 수밖에 없지.

여성들이 보인 배신감의 감정은 위와 같은 여성들의 피해당사자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구술자 B는 처음 뉴스를 접하고 느낀 감정이 배신감이었다고 말하며 “너네 건 죽어도 안 팔아줄 거야”라는 마음으로 대체재를 찾았다고 밝혔다. ‘생리대 파동’ 이전에 이미 개인의 위해성에 대한 경험으로 대체재를 찾아 사용하고 있었던 C 또한 “내가 안 아파도 될 걸 저거 때문에 아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을 강하게 느꼈다고 구술했다. 이처럼 여성들이 문제상황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배신감의 감정을 토로한 것은 오랫동안 생리통은 사람마다 다르게 겪는 게 당연하며, 심하다 해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교육받아온 여성들이 ‘생리대 파동’을 통해 사실은 지금껏 겪어온 고통과 불편이 생리대 성분의 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 기인한다. 이는 남양유업의 ‘갑질 사태’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불매운동에 힘을 보탤던 참여자들의 감정과 분명히 구분된다. 예컨대 남양유업 사태에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했던 것은 ‘생리대 파동’의 경우에서와 달리 피해 대리점주에 대한 공감과 그에서 비롯된 분노 등이었다.

## &lt;표 1&gt; 트위터 게시물 예시: 분노와 불안감의 표현

8월 18일	이제 생리대를 뒤를 써야 해? (실험의) 다른 생리대 8개 제품도 공개해라. 원래 제품 출시 전에 다 확인했어야지.
8월 18일	생리대 다 조사했으면 좋겠다. 불안해서 아무 것도 쓸 수가 없다.
8월 19일	릴리안 생리대 쓰는데 무섭다. 기사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버려야 할까?

그러나 <한겨레> 등의 보도를 통해 대부분의 국산 브랜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정보들이 알려지며 문제는 생리대 산업 전체로 확장됐고 여성들은 ‘릴리안’이라는 한 제품의 구매를 멈추는 식의 불매운동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이에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의 대체재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확장시켰다. 일회용 생리대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월경용품으로는 탐폰, 생리컵, 면 생리대, 유기농 생리대 등이 있다. 본 연구의 피면접자 전원이 파동 전후로 대체재를 탐색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A도 적합한 대체재를 찾으려 노력한 경험이 있었고, B와 G는 ‘생리대 파동’을 기점으로 생리컵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C, D, E, F는 파동 전부터 대안용품을 이용해왔다.

대체재의 탐색은 온오프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여성들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파동을 계기로 생리컵을 사용하기 시작한 한 여성이 구술자 G에게 생리컵을 추천하였고, G는 친구의 도움으로 생리컵에 정착하게 되었다. 구술자 D는 친구들에게 면 생리대를 ‘영업’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온라인에서도 여성들 간에 이와 유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lt;표 2&gt; 트위터 게시물 예시: 대안용품 경험 공유

8월 20일	생리대 끊고 생리컵 쓰니 간지러움이 없어졌다. 생리컵으로 바꾸자.
8월 20일	면 생리대와 탐폰도 별로인 사람들은 해외 생리대 추천한다.
8월 20일	OOOOO(해외 생리대) 나오자마자 써보니 면 생리대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생리대와는 달랐다.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대안용품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각각의 대안은 접근성, 가격, 편리성 등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선택할 수 있었다. 먼저 생리컵의 경우, 접근성과 가격, 사회적 인식 등이 모두 문제가 됐다. 구술자들은 한국에서 흔히 구할 수 없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까지도 오래 걸리며, 여러 개를 구입하여 시험해보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점을 생리컵 사용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질 안에 컵을 삽입해야 하는 방식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면 생리대 또한 한번 사용하고 떼어서 버리면 끝인 일회용 생리대와는 달리 사용하고 나서도 휴대해야 하고, 자주 빨아야 하기에 구술자 F는 개별 여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면 생리대를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대안용품 찾기를 통해 생리 경험의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구술자 B는 “이렇게 많은 생리용품이 있는데 왜 나는 패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라며 ‘생리대 파동’을 통해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생리용품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술자들은 다양한 생리용품의 선택지들을 탐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정보와 선택의 권한이 생리를 터부시하는 사회 속에서 제한되어 왔다는 점을 깨달았다. 정연보(2019)의 연구는 『피의 연대기』 작품의 의미화 작업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가장 적합한 대안용품을 찾아가는

과정을 몸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리대 파동 이후 여성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대안용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활발히 찾아보고 공유하는 연대의 행위를 통해 공교육이나 의료전문권력, 시장과 광고가 알려주지 않는 몸에 대한 체험된 지식들을 형성해 나갔다.

## (2)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과 시장왜곡

그렇다면 ‘생리대 파동’이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을 때, 기업은 어디까지 변화했는가? 흔히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영업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에 긴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생리대 파동’에서 기업들은 변화하지 않았다.

불매운동의 초점이 되었던 깨끗한나라의 경우 처음 성분 공개를 하던 8월 11일부터 ‘릴리안’ 생리대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환불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25일 식약처와 발맞추어 생리대에 사용된 접착제의 원료가 유엔에 의해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을 밝히는 등 적극적 대응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여성들의 폭발적 반응에 8월 23일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전 제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날 대형마트 3사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때도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생리대가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원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면서 식약처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큰 규모로 이루어진 환불과 불매운동은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야기했다. 깨끗한나라의 시장점유율은 10.8%에서 2.7%로 급락하고, 당해 영업 손실 248억 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하락했다. 다른 기업들은 환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유한킴벌리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리대 파동’ 전인 2016년 대비 각각 11%, 35%씩 감소했고 ‘위스퍼’를 생산했던 한국피앤지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일반 대중의 생리대 불매운동은 문제가 된 주요 생리대 기업들에 금전적 손실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재까지 생리대 유해성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깨끗한나라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식약처의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여성환경연대가 의뢰했던 실험의 책임자 강원대 김만구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생리대 파동’ 이후 국내 위생용품·의약 기업들은 친환경·순면 제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현재 진열장을 장식하고 있는 생리대 중 많은 경우는 이미 일회용 생리대를 생산하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한 유기농 브랜드다. ‘화이트’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는 2018년 1월 친자연 생리대 수요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유기농 생리대 ‘La Nature’를 출시했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제품은 “스칸디나비아 자연 그대로, 안심할 수 있게”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제품을 콩기름으로 인쇄한 종이상자에 담아냈다. 이는 수입 유기농 생리대와 유사한 외관으로 생리대 고급화 전략을 꾀한 결과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화이트 제품 라인 안에서도 새롭게 ‘화이트 에코프레시’ 버전이 출시되었는데, 유한킴벌리는 ‘천연유래 에코바이오커버’가 사용되었다고 광고하며 이를 일반 화이트 제품보다 25%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 중이다. 주식회사 쌍용B&C에서도 지난해 새롭게 친환경 생리대 ‘Ornic(오닉피노)’를, 예지미인은 같은 브랜드의 일반 순면제품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을 책정한 ‘그날엔 순면’ 라인을 출시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유기농 생리대들은 20종류가 넘는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소비자 여성들의 친환경 생리대에 대한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로운 제품군을 출

시험과 동시에 그들이 친환경 생리대에 기존의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대응의 한계 또한 드러난다. 여성은 한 기업체,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안전성 검증 완료”, 혹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와 같은 문구들은 고급화된 생리대 포장지에서만 발견된다. 즉 생리대 산업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맞춰 이윤을 위해서만 변화할 뿐 안전한 월경용품을 찾는 문제는 여전히 여성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화의 흐름이 생리대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대신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흡수되고 만 것은 큰 한계지점으로 지적된다. 생필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유되었으나 그 시정에 있어 제도적 강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결국 여성 소비자들의 불안을 시장자본이 파고들어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비자로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 측면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여성 소비자들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을 구매력에 따라 차등적으로만 보장받고 있다. 현재의 시장구조는 고가의 친환경 생리대를 소비하지 않는 여성이 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여성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귀속시킨다. 이러한 책임전가적인 구조 하에서 여성들의 혼란과 고민은 가중된다.

## 2. 제도 개선 요구와 정부의 대응

### (1)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요구와 언론의 ‘릴리안 죽이기’ 프레임

생리대 불매운동이 촉발된 이후 TVOC가 식약처의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정보와, 생리대 문제에 있어 식약처가 문제제기 이후에도 전수조사 계획이 없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지적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전성분표시제와 같은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해 온 의제들도 소개됐다. 이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했고, 나아가 생리대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구술자 E는 기업의 신뢰성 없는 대처와 정부 차원의 생리대 안전관리기준의 부재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말해도, 정부 부처의 검증의 기준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상기했다. B 또한 “너무 국가 차원에서 손 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 배신감이 컸다고 구술했다. 이들에게 있어 ‘생리대 파동’은 기업의 부도덕과 국가의 안일함이 중첩된 구조적 문제였다.

<표 3> 트위터 게시물 예시: 식약처·정부 비판과 전성분표시제 요구

8월 22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 식약처 생리대 검사 기준이 나오는데 검사 항목이 단 4개뿐이다.
8월 22일	달같은 자신들 입에 들어간다고 바로 전수조사하는데 여성 물품은 조용하다. (빨아 쓰기 어려운) 워킹맘에게 면 기저귀, 면 생리대 사용은 불가능하다.
8월 22일	여성의 생리대와 같은 생필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제품 성분을 검증하고 전부 공개해야 한다.
8월 22일	이 사안에서 핵심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어떤 성분이 본인들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 채 매달 생리대를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언론에서 여성환경연대에 제기된 의혹은 ‘릴리안 죽이기’ 프레임을 형성하며 여성환경연대의 대중동원력을 저하시켰다. 의혹의 요지는 깨끗한나라의 경쟁사인 유한킴벌리의 이사가 여성환경연대의 운영위원이기에 여성환경연대가 일방적으로 ‘릴리안’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구체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10

개 제품 중 깨끗한나라의 제품명만이 공개된 상황에서 여성환경연대가 다른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8월 30일 여성환경연대가 2급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생리대 대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제일 많이 검출된 ‘릴리안’ 피해사례를 모집한 것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문제 제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은 언론보도 이후 여성환경연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여성환경연대가 ‘릴리안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언론의 프레임은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또한, 생리대 유해물질 문제가 ‘릴리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은 TVOC가 검출된 ‘생리대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불신을 촉진했다. 결국,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검출실험의 공개 여부를 식약처에 일임하고, 그러한 결정은 유한킴벌리와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의 실험 결과를 대리 공개했을 때에도 언론과 대중의 주요 프레임은 ‘실제로 유한킴벌리의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맞춰졌다. 여성환경연대는 유착 의혹을 겪으며 대중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여성환경연대의 대중 동원력이 유의미하게 저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 트위터 게시물 예시: 불신의 확산

8월 24일	생리대 파동을 보며 왜 ‘릴리안’만 공개된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 유한킴벌리 상무이사가 여성환경연대에 소속되어 있다. 장난하나? ‘화이트’, ‘좋은느낌’ 다 아웃!
8월 30일	또 생리대 기사 뺐는데 문제의 생리대 이름이 뭐야? (여성환경연대는) 제품 안 알려줄 거면 뭐 하러 실험 결과 발표했어? 차라리 발표를 하지 말지.

8월 31일	(여성환경연대는) 왜 이름을 공개 안 하지? 실험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혹은 소송 당할까봐 그러는 건가? 그래서 생리대 뭐 쓰라는 거야.
--------	---

## (2) 식약처의 전수조사와 실험결과의 신뢰도 논쟁

그동안의 전수조사 요구에 “계획이 없다”고 일관한 식약처는 여성들의 적극적 요구로 생리대 제품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후 생리대 유해성 조사를 위한 ‘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팀의 실험결과는 상세한 실험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입장발표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28일 “안전성에서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는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성급한 결과 발표’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생리대 TVOC 74종 중 10종의 검출량만을 기준으로 했고 생식기관이 아닌 다른 장기에서의 독성 참고치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였다. 여성들의 부작용 경험이 TVOC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TVOC만을 검사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낸 셈이다.

이후 식약처가 진행한 조치는 남은 TVOC 종에 대한 생리대 전체 브랜드의 전수조사와 기업과의 자율적 TVOC 절감 협약이다. 식약처는 상위 5개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으로 기업의 TVOC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였다. 자발적 검사 결과 2018년에는 TVOC를 전년 대비 66% 절감한 것으로 12월 13일 공개됐다. 생리대에 대한 TVOC 검출 전수조사도 같은 날에 발표됐다. 이날 발표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TVOC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며 1년 전의 발표 결과를 재확인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의 조사에 대한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

다. 먼저 식약처는 TVOC 각 물질에 개별노출을 가정했고 실제로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수십 종의 물질에 함께 노출됐을 때(중복노출)의 위해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 생식기와 질 조직 등 특수한 노출 경로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부 노출을 통한 위해평가로 대체했다. 구술자 F는 전수조사가 전체 물질에 대한 위해평가가 아니었음에도 생리대가 ‘안전하다’는 방식으로 대중 소통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식약처의 발표를 ‘기업에게 준 면죄부’로 평가했다.

이처럼 생리대 안전성을 둘러싼 여성단체와 정부기관 사이의 논쟁이 ‘실험과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생리대 안전성 의제가 개별적, 집단적 여성의 경험보다 전문지식에 의존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드러낸다. 정인경(2014)은 1970~1990년대 미국 여성건강운동의 전개를 검토하면서, 여성건강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비중이 커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오히려 초기 미국 여성건강운동의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려던 시도가 전문지식권력으로 대체됐다고 평가한다. ‘생리대 파동’에서도 유사하게 여성들의 부작용 경험보다 실험과 조사의 방법론이 중시되면서 여성들이 의제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 (3) 역학조사 요구와 정부 부처 간 불일치

파동이 촉발된 이후로 여성환경연대는 역학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생리대 파동’을 통해 광범위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여성환경연대는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서 청원운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 대중으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아 시민단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이 여성환경연대가 채택한 대중운동 방식이었다. 9월 5일 여성환경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해라”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9월 15일에는 정의당이 생리대 건강역학조사 환경부 청원서를 제출했다. 9월 28일에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가 출범하였으며 생리대 제품의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는 비교적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었다.

환경부는 11월 29일 정의당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어 생리통 증가 등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식약처의 TVOC 위해평가 결과가 발표된 지 6일 후인 12월 19일에 발표됐다. 환경부의 조사는 여성들의 부작용 경험이 임상학적인 증거가 있음을 밝혔다면, 식약처의 전수 조사는 TVOC 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성이 없다고 밝혀 조사 목적이 달랐음에도 두 연구의 결론은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식약처가 직전에 먼저 발표를 한 것이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축소하기 위함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역학조사에 해당하는 본조사 단계로 넘어갔지만 본조사의 시행과 관련한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 2019년 5월 21일 이뤄진 토론회에선 본조사의 표본은 최소 2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1억 7천만 원에 불과해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정부기관의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은 토론회 당시 여성환경연대의 활동가가 언급했듯 ‘유래 없는 성과’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식약처가 모순된 입장을 내놓거나 본조사의 예산 부족이 지적되는 모습은 정부가 여성들의 적극적

문제제기만큼 여성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3. 파동 이후의 변화

#### (1) 생리하는 몸의 재인식

많은 여성들은 ‘생리대 파동’을 겪으며 생리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파동 이전에 사회는 여성들이 일상에서 생리에 대해 자유롭게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2003년, 한 보수 기독교 교단의 목사는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여자가 기저귀 차고 어디 강단에 올라와!”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에도 한 지방의회 기초의원이 “‘생리대’라는 말이 거북하니 ‘위생대’라고 하면 대충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구술자 A 또한 파동 이전, “너 그날이야?”라는 말이 농담의 대상으로 쓰이기까지 했던 분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터부시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의 생리 경험을 나누기 어려웠다. 그러나 ‘생리대 파동’ 이후에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롭게 생리 경험을 발화하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구술자 C의 진술은 그가 체감한 분위기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구술자 C: 생리에 대한 말 자체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 나 오늘 생리해서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 같아. 생리현상이라서 생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말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어릴 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공론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걸 파동 끝나고 깨달은 거 같아.

‘생리대 파동’을 통해 각자의 생리 경험을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

게 된 여성들은, 생리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여성은 보편적으로 생리를 경험하지만 그 경험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적었고, 이로 인해 생리로 인한 고통과 불편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를 들어, 구술자 A는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적어도 피부가 쓰러진 건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로 인한 피부 쓰러짐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인의 문제로 유보되었던 불편함이 구조적인 것이었다는 깨달음은 생리하는 자신의 몸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구술자 A: 사실 이번 생리대 문제도 그렇고 훨씬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개인의 노력으로만 보니까. ... 생리대 아니면 임신, 출산, 이런 게 굉장히 국가가 해야 할 몫이 개인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와 같은 구술에서 드러나듯이, ‘생리대 파동’을 통해 여성들은 국가가 여성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모든 부담을 여성 개인의 몫으로 전가시켜 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료 보장 시스템, 생리대의 안전성과 보급의 문제, 생리하는 몸에 대한 공교육 과정에서의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된 것이다. 구술자 E는 자신에게 맞는 대안용품을 혼자 알아보는 과정에서 월경에 대해 처음 교육받을 때 일회용 생리대 외의 생리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확장해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생리용품의 선택지와 ‘생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아갔다.

‘생리대 파동’ 전후 생리대 복지정책의 변화는 위와 같은 여성의 달라진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생리대 관련 복지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에 생리대를 무상 지원했다. 처음으로 생리용품이 복지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정책은 취약계층 청소년에 집중할 뿐 생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동 이후 생리 자체가 공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여성들의 생각이 확산됐고, 특히 ‘릴리안’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대표적 품목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모두가 원하는 생리대를 쓸 수 없는 현실이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이에 따라 정당과 지자체는 앞다퉈 생리대 보편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28일 정의당은 25개 시민단체들과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2018년 10월 서울시의 공공시설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무료비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여주시, 진주시 등의 지자체들은 공공생리대 정책을 시행했다.

## (2)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광고 변화

아울러 여성들은 시장과 국가제도의 차원 이상으로 문화적 차원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들은 살충제 계란 사건을 비롯한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며 ‘생리대 파동’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생리대가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생리대 문제가 살충제 계란과 같은 생활 속의 유해물질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여성을 대하는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문제 진단의 확장으로 나아갔다. 생리대 문제는 여성들의 몸을 끊임없이 대상화하는 남성 권력의 문제라고 지적됐다. 여자의 생리 경험을 왜곡하는 기업의 광고를 문제시하는 게시글도 있었다. 생리의 붉은 피가 ‘파란 피’로 대체되며 생리 기간에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옷’을 입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여성을 묘사하고 있는 기업의 광고 자체가 생리에 대한 현 사회의 인식을 대변한다는 지적이었다.

<표 5> 트위터 게시물 예시: 문제 진단의 확장

8월 22일	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남자이니 생리대 문제가 이렇게 살충제 계란 문제처럼 공론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8월 22일	한국 생리대가 늘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도 고민하지 않는 남자들의 생각에는 여성용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이 가진 특권이다.
8월 22일	생리대 광고를 보면 기업이 근본적으로 여자의 생리에 대해 아예 무지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광고를 보면 여자들이 생리할 때 흰 치마를 입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려냈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문제제기가 영향을 미쳐 ‘생리대 파동’ 이후 새로운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트라케어의 2018 캠페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것도 너의 선택](2018.11.), 화이트의 [시크릿홀 순삭흡수] 시리즈(2019.4.), 라엘의 [여성을 생각합니다](2019.5.) 등의 광고가 여성들의 열광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나트라케어의 광고는 유튜브에서 유한킴벌리 전체 광고(180만)의 8배에 달하는 조회수(1360만)를 단일 영상에서 기록하기도 했다. 새로운 광고들은 ‘그날’이라는 표현 대신 ‘생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흰 치마의 대상화된 여성이 아닌 생리 기간의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담았으며, 빨간 생리혈을 표현해냈다. 나트라케어의 광고는 “그래서? 그날이 도대체 뭔데? 아프고



<그림 1> 생리대 광고 자료

신경질 나. 뭘 입어도 불안해. 절대 상쾌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게 생리야.”와 같은 대사를 활용해 생리가 터부시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꼈을 감정을 대변하기도 했다. 화이트는 2019년 자궁내벽을 의인화한 광고를 선보여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생리대 광고에 맨날 흰바지 흰치마 입고 나와서 산뜻하다고 거짓말치고 광고하는 거 지켜왔는데 이제야 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나 보다. (좋아요 1.3만개)

솔직히 남자들이 생리 안 아프고 대소변처럼 한 번 배출하면 되는 건 줄 알고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옛날 생리대 광고들이 한 몫 했다고 봄. 생리대 광고들은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생리대 광고는 진짜 좋은 흐름으로 변하고 있음. 그리고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사회의 인식도 변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3천개)

이 브랜드 취지가 좋아서 여기 생리대로 정착하려고요. 이

런 왜곡 없는 광고를 하는 브랜드가 성공할수록 다른 브랜드 들도 돈 벌기 위해서 자연스레 따라가겠지요. (좋아요 6천개)  
(《유튜브 채널 스프스뉴스》, 2019년 5월 28일자)

여전히 다수의 생리대 광고가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본론 1-(2)에서 지적했듯 시장이 생리대 안전성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생리대 파동’을 계기로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여성의 문제제기에 의한 대중매체의 문화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내 몸이 증거다’와 같은 대중퍼포먼스와 『피의 연대기』같은 논픽션 작품의 제작,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성들 간의 생리 경험 공유는 피해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 화이트 생리대 광고 마케팅 팀장과 유기농 생리대 라엘 홍보팀장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테스트 단계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해당 광고가 최종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4. 여성인권운동으로서의 생리대 파동

##### (1) 생리대 파동의 여성인권운동적 함의

‘생리대 파동’은 여성인권운동의 맥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생리대 파동과 이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운동의 주체는 꾸준히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져온 여성운동단체와 생리 경험과 밀접한 여성 당사자들이었다. 여성환경연대의 축적된 활동과 김만구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는 생리대 파동을 불러오는 중대한 계기였으며, 이것을 대중 공론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여성들이 결국 생리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굵직한 변화들을 만들었다. 여성환경연대라는 생리대 의제 전문가와 여성 대중 주체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리에 대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다. 여성환경연대가 홀로 정부와 기업에 요구했을 때 일어나기 어려웠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욱 고무적이다. 여성들은 사회에 의해 주변화되어 왔다는 불편감을 표출하며 스스로가 생리 경험의 주체, 능동적인 소비자, 공적 논의의 주체라는 사실을 아낌없이 행위를 통해 보여줬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여성인권운동은 여성이 자신을 주변화시키는 구조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선언하는 과정이라는, 당연하지만 강력한 명제를 ‘페미니즘 리부트’의 흐름 속에서 재확인시켰다.

둘째, 생리대 파동은 생리하는 여성의 신체를 바라보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허무는 계기였다. 생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 불결한 것처럼 취급되어 왔으므로 여성은 생리나 생리 용품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생리를 사사화(私事化)해온 견고한 역사는 생리대 파동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생리에 대한 발화로 인해 균열을 얻었다. 남성중심적 시각을 견지하는 제도와 산업이 여성의 생리를 방치하거나 스스로의 젠더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생리는 더 이상 여성과 유리된 채 남성 주체에 의해서만 위치를 부여받는 대상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자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여성의 질을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는 공간으로 파악화하는 시선과 충돌하는 장치인 삽입형 생리대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사용하는 경험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생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곧 여성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시선 주체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복은 실제적인 제도적, 사회적 개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생리대 파동은 여성건강권운동의 논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파동의 당사자로 ‘던져진’ 한국 인구 절반의 여성들이 모두 여성건강권운동의 역사적 주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성환경연대라는 주요한 운동의 축을 고려할 때 생리대 파동은 여성건강권운동

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월경권이라는 영역에서의 성취는 낙태죄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한국의 여성건강권운동에 보다 다양한 의제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생리대 파동은 여성의 몸을 법제도적, 사회정치적 논의의 협상의 장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조류에 더해, 산업자본이 몸을 통제하는 방식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생리대 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여성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높은 비용을 부과하며 자본의 규모를 늘려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성들은 이에 분노하여 불매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항의를 전개하며 산업 자본에 맞섰다. 안전한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공생리대 지급 등 생리를 기본권의 영역에서 다루려는 시도도 등장하였다.

즉, 생리대 파동은 여성 집단이 주체가 되어 일련의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는 시선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개선을 가져왔다는 점, 여성건강권운동의 맥락 위에 있으며 산업자본의 몸 통제라는 의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여성인권운동적 함의를 갖는다.

## (2) 운동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한편, 지금의 입장에서 생리대 파동을 돌아보면 운동의 과정과 결과상의 몇 가지 한계들이 발견된다. 우선, 동력이 빠르게 모아진 이후에 운동은 언론의 기업 친화적 프레임 형성,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이나 추가보도의 부재 등과 같은 방해 상황에 부딪혔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운동은 동력을 상실하였다. 동력 유지 실패의 한층 근본적인 원인은 운동의 구심점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생리대 운동의 전개에서 중요한 특징은 문제제기와 공론화의 과정이 대부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김해원 외(2018: 130)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중심의 운동은 의제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특정 집행부 없이 개인들로 연결된 “주동자가 없는 시위”의 형태를 띠기에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데 실패하고 쉽게 와해될 위험성을 지닌다. 생리대 운동 또한 이런 위험을 피해갈 수 없었다. 불매운동이나 기업에 대한 환불 요구, 대안용품 모색 등은 어느 운동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자발적인 구심점이 형성되거나 대중 시위가 조직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문제의 공론화 과정에서 시위 조직을 위한 ‘불편한 용기’라는 운동의 구심점이 형성되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오랜 시간 환경과 여성 건강권 운동을 펼쳐 온 여성환경연대도 조직과 동원에 주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활동가 F에 따르면 여성환경연대의 전체 인원은 8명, 실무를 맡는 활동가는 7명에 불과하고, 활동 기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해물질 검출실험 비용은 온라인 펀딩을 통해 200만원을 마련했고 해당 금액에 실험을 진행할 것을 유일하게 승낙한 김만구 교수팀에게 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된 실험결과를 기업과 식약처에 보냈을 때 돌아오는 특별한 답은 없었으며, 오히려 식약처는 실험결과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생리대 전수조사에서도 식약처는 기업친화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여성환경연대의 실험결과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예비조사와도 정반대되는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은 식약처의 발표에서 면죄부를 얻어 진행하던 환불조치 등을 모두 중단했고 특히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성환경연대에 “건설한 중소기업을 너희가 죽게 만들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었다. 생리대 문제가 커지면서 기자회견과 거리 퍼포먼스, 캠페인, 기업 대응, 민관협의체 참여, 국정감사 참여, 소송 대응 등 여성환경연대가 수행해야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7명의 인원

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새로운 대중운동을 기획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다. 결국, 제도권 안팎에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자원 문제, 여성 건강권에 대한 요구는 경제 발전과 상충한다는 발전주의적 담론이 제도권 안에서 생산되었다는 문제가 기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유일한 여성단체는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운동 초기 여성환경연대 외 다수의 여성단체가 모여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가 조직된 바 있다. 여성환경연대의 조건적 한계를 보완하며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보이지만, 네트워크의 역할은 기자회견 시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성명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F는 낙태죄 등 다른 중요한 여성인권 관련 의제가 있었기에 타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타 여성단체 또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운동들에 여성환경연대처럼 전력을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어떤 의제들에 관해서는 단체들 간의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개별 단체의 여력 부족이 필연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F는 이어서 민우회 등의 다른 단체 또한 월경 용품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은 성과를 이룬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환경연대의 입장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성환경연대에 이니셔티브가 있는 주제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에서 여성단체 간 일종의 ‘의제 배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구심점 문제와 더불어 개인이 운동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한계도 있다. 몇 구술자들에게서 실질적 변화에 대한 비관적 태도와 개인적인 여력 문제가 발견되었다. D는 생리대 유해성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려면 개개인 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문제 인식 및 동참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의 인식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A는 생리컵 사용을 시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행동함으로써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고, 이러한 의욕의 꺾임은 대안용품을 찾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좋은느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식약처와 환경부, 정부부처에서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인상을 심어준 부분도 여성들의 회의감을 증폭시켰다. 즉, 여성들의 인식은 변화했으나 생리대 안전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변화는 그만큼 뒤따르지 못했다는 정체된 현실이 여성들을 움짱달짝하지 못하게 움아매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식약처, 생리용품 산업, 법제도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식약처의 제품 전수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식약처는 관심이 저하된 여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안정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업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신속한 환불조치를 취하던 기업들은 이내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며 시장 가격대를 높였다. 여성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생리대 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되었지만 환경부에는 2만 명의 여성을 추적조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할당되었다. 식약처와 국가 제도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변화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지, 여성이 건강하게 생리할 권리를 위한 공적 움직임이 있는지, 여성 소비자를 의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불안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재이용하는 생리용품 산업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생리대 가격 등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방안이나 참고할 만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

나 2010년대 후반에서야 시작된 생리대 파동은 한국의 월경권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계에 매몰되기보다는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략을 고민할 토대로 이를 바라보아야 한다.

나아가 페미니즘 연구에서 월경권에 주목하여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작업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여성학 연구의 대상으로 생리가 거의 다뤄지지 못했다고 진단하는 노지은(2018)의 지적과 같이 한국의 월경권 담론이 출발한지 20여년이 되는 시간동안 축적된 연구의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월경 문제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월경의 병리화와 의료 권력의 문제, 근대적 몸 관리로서 월경 처리 기술, 생리대의 자본주의적 상품화 문제, 여성중심주의적인 지식과 교육의 부재, 대중미디어의 부정적 월경 이미지 재생산 문제, 월경의 터부시 현상,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권과 건강권 차원의 노력 등(노지은, 2018: 145 재인용<sup>1)</sup>) 한국 사회에 노정된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과 구성자 구성 상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생리대 파동’의 의미화 작업을 수행했다. 생리를 둘러싼 다양한 경험이 발화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의미 있는 연구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 Ⅲ. 결론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에서 시작된 ‘생리대 파동’은 우리의 사회를 그 이전과 이후로 분절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국산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모든 여성들은 피해자 동일시의 과정 없이 피해자

---

1) Martin, 1987; Laws, 1990; Lee and Sasser-Coen, 1996; Ussher, 2006; Vostral, 2008; Freidenfelds, 2009; Bobel, 2010; Davidson, 2012 연구 주제들에 대한 재인용

집단으로 던져졌고, 이들은 기업에 대해 불매를 선언했다.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생리 주기와 양의 불규칙함, 극심한 생리통, 불쾌감 등이 제품의 결함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여성들은 분노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유해물질들로 제품을 제조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 생리대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기업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 여성의 건강 문제에 무관심하고 생리를 숨겨야 하는 것, 사회적으로 발화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한 사회적 압력으로 찾아 들어갔다. 여성들은 그동안 생리대 안전성을 논의함에 있어 여성의 건강이 기업의 이익, 제도적 편리성 등에 가려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과동 이전에도 생리와 관련된 논의는 존재했다. 페미니스트들은 건강권, 재생산권 등의 주제를 통해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던 사회적 시선에 대항했다. 생리를 포함해 임신, 낙태, 출산 등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단화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인 여성이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강조됐다. 가장 사적인 문제로 치부됐던 생리를 공적 문제영역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 또한 계속됐다. 민우회를 중심으로 생리대 부가가치세 철폐 운동이 일어났으며 대안 생리용품 소개 움직임 또한 존재했다. 2016년엔 ‘깔창 생리대’ 문제가 알려지며 생리대의 높은 가격이 크게 지적됐다.

하지만 ‘생리대 파동’에서 여성들은 한층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보여줬다. 여성들은 트위터라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운동을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생리대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압박하고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제정을 촉구하는 등의 직접적 요구가 등장했다. 이는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져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 외 대안용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과 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에

대응해 이루어진 불매운동은 국내 대형 생리대 제조 회사에 영업 손실을 야기했다.

그러나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갔던 것은 아니다. 다른 생리대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틸리안’의 이름만 호명된 상황에서,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이 ‘틸리안 죽이기’에 불과하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퍼졌다. 여성환경연대는 재빨리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짜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비슷한 시기, 식약처는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여성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운동은 강한 대중동원력을 장기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대안 용품을 모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인과 경험을 공유했다. 파동 이후 모두가 자신에게 알맞은 대체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찾기 위한 과정은 여성들의 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틸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여성환경연대는 ‘내 몸이 증거다’라는 집회를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식약처에 항의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통해 전성분표시제와 환경부의 사전역학 조사가 시행되었다. 여성들은 생리대 문제에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월경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했고 그 운동은 일정 부분 성공했다.

파동의 전개과정에서 이뤄진 제도의 개선 이외에도, 파동 이후 두 층위에서 변화가 관찰되었다. 우선, 생리하는 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다. 여성 스스로도 생리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발화하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생리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생리에 따르는 고통과 불편이 마냥 여성 개인이 감수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광고가 생리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변화하였다. 생리를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생리하는 여성을 흰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생리혈을 파란색 액체로 은유하던 기존의 광고와 달리 생리를 현실에 가깝게 재현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한편 ‘생리대 파동’ 이후 생리용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업들이 높은 가격의 유기농 친환경 생리대를 새롭게 출시한 것에 대해 시장의 왜곡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규제가 여전히 요구되는 지점이다.

다섯 명의 연구자 역시 생리를 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연구 내내 적어도 한 명은 생리 중이었던 셈이다. ‘생리대 파동’을 겪은 당사자이자 파동으로 변화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여성인권운동으로서의 ‘생리대 파동’을 그려낸 우리의 작업이 여성이 보다 자유롭게 생리하며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미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논문접수일: 2019.10.31, 논문심사일: 2019.12.11, 게재확정일: 2019.12.18)

## 참고문헌

### 1. 국내외 문헌

- 김미현. 2007. “붓그러하면 큰 병이 생깁니다.” 김정화 외 편. 『20세기 여성, 전통과 근대의 교차로에 서다』. 서울: 두산동아.
- 김보명.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사회』 99-138.
- 김소라. 2013. “먹는 피임약 분류를 둘러싼 각계의 갈등과 담론 구조.” 『한국여성학』 29(3): 81-113.
- 김애라. 2019. “‘탈코르셋’, 켄레디위드미(#getreadywithme):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35(3): 43-78.
- 김해원·박동숙·이재원·정사강·강혜원·백지연. 2018. “5월 19일, 여성들은 혜화역에 어떻게 모였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의제화와 조직화 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6(4): 85-139.
- 꿈지모. 2003. 『꿈꾸는 지렁이들』. 서울: 환경과생명.
- 노지은. 2014. “1970년대~1990년대 생리대 광고 담론과 여성.” 『여성과 역사』 21: 219-49.
- \_\_\_\_\_. 2018. “아시아 여성들의 월경 관리 사례 연구.” 『한국여성학』 34(2): 143-177.
- 박은아·박민지. 2018. “누가 불매운동에 참여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9(1): 121-138.
- 박이은실. 2015. 『월경의 정치학』. 서울: 동녘.
- 오화영. 2016.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젠더와 문화』 9(1): 131-160.
- 이종임·홍주현·설진아. 2019.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Me Too)운동과 젠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2): 99-146.
- 장정현·김선호. 2014. “공감, 책임귀인, 그리고 분노가 이타적 처벌 의사에 미치는 영향.” 『韓國 言論學報』 58(5): 97-122.
- 정연보. 2019. “월경과 몸의 혐오에 대한 도전: 다큐멘터리 피의 연대기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8(2): 133-166.
- 정인경. 2014. “1970-1990년대 미국 여성건강운동의 전개를 통해서 본 전문

지식권력과 시민권의 정치.” 『한국여성학』 30(2): 233-265.

Bobel, Chris. 2008. “From Convenience to Hazard: A Short History of the Emergence of the Menstrual Activism Movement(1971-1992).”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9(7): 738-754.

Friedman, Monroe. 1999. *Consumer Boycotts: effecting change through the marketplace and the media*. New York: Routledge.

Kozinets, Robert V. and Handelman, Jay. 1998. “Ensouling Consumption: A Netnographic Exploration of Boycott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5: 475-480.

Roh, Jieun. 2019. “Feminist menstrual activism in South Korea (1999-2012).”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5(1): 96-116.

Sen, Sankar, and Gurhan-Canli, Zeynep, and Morwitz, Vicki. 2001. “Withholding Consumption: A Social Dilemma Perspective on Consumer Boycot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8(3): 399-417.

## 2. 언론보도

경향신문, 백영민·이윤지 기자, “생리대 바꿨더니 생리량이 준다?”, 2017.08.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09321&sid1=001>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 “[식약처, 생리대 조사 결과 발표]역학·추가조사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성급히 “안전” 결론” 2017.09.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82154015&code=940601#csidxd9377db5c7f401c885cdb7e8f9ee7ca](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82154015&code=940601#csidxd9377db5c7f401c885cdb7e8f9ee7ca)

뉴스1, 김민석 기자, “깨끗한나라, 생리대 시장점유율 1Q만에 11%→3% ‘뚝’... ‘유해성 논란’ 직격탄”, 2018.05.29. <http://news1.kr/election613/news/articles/?3326025>

더피알뉴스, 조성미 기자, “드디어 빨개진 생리대 광고”, 2019.05.09.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7>

- 동아일보, 김진경 기자, “쉬쉬말고 떳떳하게 여성계 ‘월경 제대로 보기’ 운동”, 1999.09.06.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90600209143001>
- 매일경제, 엄하은 기자,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 대상 환불 실시”, 2017.08.2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8/565080/>
- 매일경제, 김제이 기자, “릴리안 생리대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에 유한킴벌리 임원 활동”, 2017.08.2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8/568051/>
- 세계일보, 이현미·김준영 기자, “발암물질 검출 많은 제품은 놔두고... 표적된 릴리안”, 2017.08.30.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830004139>
- 스브스뉴스, “빨간 피, 자궁 리모델링? 믿기지 않는 국내 생리대 광고 근황” <https://www.youtube.com/watch?v=7diCZDHJiE8>
-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단독] 생리대 실험비용 출처... 여성환경연대 아니다”, 2017.09.05.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83115102368382>
- 여성신문, 박길자 기자, “광산구의회 4선 박삼용 전근대적 사고 “생리대 용어 거북해” 발언 전말”, 2016.07.0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58>
- 오마이뉴스, 박형아 기자, “생리대 부가세 면제 논란 ‘2라운드’”, 2003.08.0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763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7633)
- 오마이뉴스, 조호진 기자, “여자는 ‘기저귀’ 차서 목사가 될 수 없다?”, 2003.12.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634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6347)
- 오마이뉴스, 송민성 기자, ““왜 생리대의 안전성이 간과되었는가””, 2004.01.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1&oid=047&aid=0000040716>
- 조선일보, 이경민 기자, “생리불순·발진 유발?…식약처, ‘릴리안 생리대’ 조사 착수” 2017.08.18. <https://twitter.com/Chosun/status/898744353752965>

121

중앙일보, 홍상지 기자, ““값싸서 쓰고 저소득층 나눠줬는데 …” 생리대 파문에 분노한 여성들”, 2017.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1873755>

중앙일보, 채혜선 기자, “문제는 릴리안이 아니었다... “발암물질 최다 검출 생리대는 유한킴벌리 제품””, 2017.09.04. <https://news.joins.com/article/21902168>

중앙일보, 이에스터 기자, “식약처, “국내 생리대 전수조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량 줄었다””, 2018.12.13. <https://news.joins.com/article/23205437>

한겨레, 박다혜·김미영 기자, “‘릴리안’ 생리대만 조사하면 그만인가요?”, 2017.08.21.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07653.html>

한겨레, 황금비 기자, “생리대 업체 임원이 운영위원? 여성환경연대, 의혹 반박”, 2017.08.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42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422.html)

한국경제, “[산업 리포트] ‘혁신 무풍지대’ 생리대 시장의 변화...선두업체 부진속 스타트업들 약진”, 2019.05.07.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article-177510>

한국일보, 김지현 기자, “[단독] 발암물질까지 방출... 안전 째짤한 생리대”, 2017.03.2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220429028955>

한국일보, 김지현 기자, “[뒤끝뉴스] 생리대 독성물질 제품, 왜 공개 안 할까”, 2017.03.2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221950367403>

헬스프레스, 황운하 기자, ““생리대 업체들 릴리안과 같은 접착제 사용””, 2017.08.28. <http://www.health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

YTN, 김경수 기자, ““깎창 생리대’를 아시나요?...가난한 소녀의 눈물”, 2016.05.31. [https://www.ytn.co.kr/\\_ln/0102\\_201605310000291863](https://www.ytn.co.kr/_ln/0102_201605310000291863)

### 3. 기타

-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검출시험 관련 제기된 질문과 요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7.08.26. <http://ecofem.or.kr/18723/>
- 여성환경연대, “[보도자료] 생리대 검출시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 운동”, 2017.08.31. <http://ecofem.or.kr/18798/>
- 여성환경연대, “[성명서] 생리대 안전을 위해 개별물질 평가 외에 ‘여성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2017.12.28. <http://ecofem.or.kr/19254/>
- 여성환경연대, “[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2018.12.13. <http://ecofem.or.kr/19993/>
- 이안소영, “국내·외 생리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 ‘생리대 유행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공동포럼 자료집, 2019.05.21.

<Abstract>

The 2017 ‘Sanitary Pad Incident’ and Thereafter  
: Focusing on the Aspects of Women’s Health Rights Movement

Jimin Keel · Hyeji Kim · Nuri Lee · Yeryeng Choi\*  
· Jiwoo Han\*\*

The Sanitary Pad incident outbreaked in August of 2017, concerning the over-the-limit toxicity of sanitary pads being distributed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broadcasts that reported overt levels of toxic chemicals and harmful substances found in multiple sanitary pads, women have actively spoke out for changes, both online and offline. The sanitary pad incident is appreciated as a woman’s rights movement that brought improvement in social perception and treatment of women’s menstrual rights, and is acknowledged alongside many online feminist movements activated through the “Feminism Reboot.”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rocess of the movement and the changes women’s practices have elicited with in-depth interviews and comprehensive analysis on online SNS data regarding the issue. The women shared their experiences and sentiments, urged the companies and government for fundamental redressing of the matter, and demanded that all ingredients be labeled out. There were certain shortcomings,

---

\* Jimin Keel · Hyeji Kim · Nuri Lee · Yeryeng Choi: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ever. These movements lacked the inner hub to constantly refuel the force of social attention, and the problem of safety remains unsolved to this day. Nevertheless, the counter-movement to the Sanitary Pad incident is evaluated to have towed the legalization of all-ingredients-specification on sanitary pads. It also helped to establish a more positive view on women’s body that menstruates, as well as boost correlated issues on women’s rights to health. The sanitary pad incident is recognized as a milestone in Korean menstrual movement, and further studies shall widen the scope of its discussion up to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women’s menstrual rights.

Key words: Sanitary Pad Incident, sanitary pad safety issues, women’s rights to health, menstrual activism, social movement, women’s rights movement,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all-ingredients-specification, online feminism